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2□(□)~14□(□) □□□□□□ □□□ □□□□ □□□ 2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개항장 예술축제 INCHEON OPEN PORT ARTS FESTIVAL

2018. 10. 12~14일
인천아트플랫폼, 신포동

일	시간	장소
12일	19:00 - 21:00	인천아트플랫폼, 신포동
13일	19:00 - 21:00	인천아트플랫폼, 신포동
14일	19:00 - 21:00	인천아트플랫폼, 신포동



<p><2018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p>	<p>2018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p>
---------------------------------------	------------------------------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 100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00 00 0

000000 000 000000 00 000 000 000 0 00 000 00000 '000000 00'0 000
0000, 000000 000000 0 00 000 000 00 000 00000 '00 000 00', 000 00
00 00000 0 000000 00, 000 000000 000 0 00000 000 00 00000 00000.
00 000 '0000 00' 000 '00000 00'0 0000 00. 00 000 000 000 000000 00
000000 00 00 000000 000 000000000, 000000 00000 00 0 00, 00 00000 000
0000 00 00 00 00000. 0 000000 0000 40 0000 00 0000 00000.



0000 0

0000 0000 '0000 000 00'0000 0000 000 0000 00000. 00 000000 0000 000 00000 0
000 0 0000 0000. 000 0000 000 0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00 0 000 0000 0 0 0000 350000 0 000000 000000 0000 000, 000 000000 000000
0 0000.

0000 00 0000 0000 0(0)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 0000 0 000 0000 00. 000
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0 000 000000 00000000 00000000 000 0000 000
0. 0 0000? 0000 000 000000 000 0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0000 000000
0000 0000 0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0 000000 000 0000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0000. 000000 000000 000 0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00000 00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 0 0000 0000 00000000 000 0
000 0 000000 0000 000 000. 000000 0000 0000000000000000 000 000000 0000 00000000 000
0000. 000 0(0)0 00000000 0 0 0000 000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
0000 00000000 0000 000 000 000000 000. 0000 0000 000000 000000 0000 000 0000 000000
00000000 0 0 0000 0000 000.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10:00 分 20 分 会议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10:00 分 20 分 会议 <···> 会议

会议时间: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13:00 分 会议。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10:00 分 20 分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1,000 会议 会议 会议 会议(会议)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会议 会议 会议)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5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 문화/생활 > 공연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인천 온다

1월 31일 '문화바람' 첫 번째 콘서트

이영주 기자 | inpress@inmail.net

2006.01.11 17:23:13



백창우(좌)와 굴렁쇠 아이들

지난 달 15일 새롭게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대표 임승권)가 올해 첫 번째 공연으로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의 중요콘서트를 '노래야 나오나라'를 개최한다.

백창우씨는 시인이자 음악인, 프로듀서로서 1980년 불혹집 음반 <시인/인생> 발표 이후 20여년간 내겐의 시집과 13장의 작곡집, 20여 장의 중요음반을 출간했으며 198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전용 음반사 삼삼개를 만들어 전래동요와 창작동요를 보급하고 있다. 어린이 노래모임 '굴렁쇠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모임으로 각종 공연과 전래동요, 창작동요 음반작업에 참여해 왔다.

오는 31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콘서트 '노래야 나오나라'는 그동안 주로 음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어린이들의 삶과 정서가 담긴 노랫말과 가락으로 사랑을 받았던 '막지 피력기'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여름무우 씨름무우' 등 주목할만한 노래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설집이개' '백구' '따오기' 등 어른들이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들도 함께 해 부모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따뜻한 콘서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관객들이 직접 공연을 선정하고 유치함으로써 특별한 인천의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로 새롭게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의 '문화수용자운동'인 문화바람 첫 공연이기도 해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최경숙 사무국장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바람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수용자운동"이라며 "문화바람의 첫 공연인 만큼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서트를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바람이란 할 일중심의 회비를 내고 일종의 공연,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번 '노래야 나오나라' 중요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 1년 동안 5차례의 문화바람 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의 관람료는 문화바람 회원은 무료이며 미리 예약해야 하고, 비회원의 경우 1층 객석 2만원, 2층 객석 1만5천원이다. 또한 10인 이상 단체관람이거나 가족관람의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442-8017

3.4월, 여머는2 할인혜택 행사!

문화바람의 창립자입니다 인천공연!!

일시 2006.5.23-6.8 평일 8시/토,일,공휴일 4시,7시
장소 남구학산소극장 기획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예약문의 032.442.8017 http://www.peopleart.org

- event1**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초기 예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공연 관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우선 배정해 드립니다. (가열, 나열, 알파석부터 중간까지)
- event2** 예매를 하시는 모든 관객분에게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3명 예매시 : 80,000원, 4명 예매시 : 100,000원
5명 예매시 : 120,000원. *참고, 일반 기준.)
- event3** 예매시 연인,친구,가족 등 함께 오시는 분들과 나눌 **사연**을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공연 중 배우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참고, 3월 1일부터 6월 7일 까지)
- event4** '문화바람'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드리는 소정의 선물과 회원전용 프리티켓(Free Ticket) 2매를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1. 문화바람 회원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기획한 **모든 공연을 80% 할인**하여 프리티켓(Free Ticket)을 이용 무료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매월 1만원을 납부하는 문화바람 회원들의 명의로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 휴비 미납 및 연체시 프리티켓(Free Ticket) 사용이 정지됩니다.)

이 공연은 문화바람 회원은 무료이며 미리 예약해야 하고, 비회원의 경우 1층 객석 2만원, 2층 객석 1만5천원이다. 또한 10인 이상 단체관람이거나 가족관람의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442-8017

2006년 6월 17일, 인천 시민문화예술회관에서 '노래야 나오나라'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문화바람 회원은 무료이며 미리 예약해야 하고, 비회원의 경우 1층 객석 2만원, 2층 객석 1만5천원이다. 또한 10인 이상 단체관람이거나 가족관람의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442-8017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사진]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블로그'의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블로그'의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2009년 댓글 달아주세요.



[00] 000 000 00 0000. 0000 00 10 000 0000000 0000 000 000 00 0000 000 000. 000 '000'0 000 00000, 0000000 000 00000 0000 00 000.

00000 0000000000000000 0000 000000000000000 <0000>0 0 00 0 00000 <0000000000 0>0 000. 000000 000000 000 00, 000 000000, 00000 0 00000 00000 00, 0 0, 00000 00000 00000. 0, 000 00000 00 000 00 00000000 00000 00 000. 0 00 00000 00000000 00 "0000"0000 0000 0000 00.

20060000 20160000 <00000000000>0 0000 0000 00 0 10000 00 000000, 0000 0 00000 00, 0000 000000 00, 00 0000 0000 00000000 00000.

00. H 00 00000 0000 000 000 00 00 00 000 00 0000.



[00]000000 0000 00 00000'0000'. 00 0000 0 1000 0000 000000, 0 0 8400 000000.





[캡션]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17일째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17일째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17일째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17일째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17일째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17일째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17일째 인천생활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00]H0 00 000 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 0 0 000 000 000000.



[00]000 0000 200 0000 00000 00000 000 0000. 00 0 00000 00, 000 00 0000 0000 0000 00000.

0000 90 150 0000 0000. (00, 00000000 0000 210000 00000) 0000000 0000 0000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경제 위기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실업률 저하와 소득 분배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경원 (Kim Kyeong-won)

김경원 대표

02-1234-5678

김경원 대표, 김경원 대표, 김경원 대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경제 위기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018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

2018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

2017년 2월 12일, '소설의 자리', '소설 속 인물들의 공간을 중심으로' ...

2018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 <소설의 자리>

2017년 2월 12일, 서울대학교(서교대)에서 열린 '소설의 자리' ...

2017년 9월 22일,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하리의 여학생날기' 공연이 열렸다. 공연은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주제로,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제목의 공연이 열렸다.



【공연 관람】 공연 관람



【공연 관람】 공연 관람 관람객의 모습



【공예 체험】 공예 체험



【공예 체험】 공예 체험

이번 공연은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주제로,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제목의 공연이 열렸다. 공연은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제목의 공연이 열렸다. 공연은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제목의 공연이 열렸다. 공연은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제목의 공연이 열렸다.

공예 체험 <공예>

이번 공예 체험은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주제로, '하리의 여학생날기'라는 제목의 공연이 열렸다.

0000 0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 0 0000 00 00 00 0000 00000 0000 0
 00000, 0000000 0000 0000 0 0000 000000 00, 0000000 00 00 0000 0000000 0000 0
 0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 0000 00 000000 00000, 00 00 00 00 00 0
 00000 00, 00 00000 000000 0 00 00 0000000 00. 0000 00 00 00000 0 0000 0
 0000 00000000 00. 0000 0 0000 0000 0000 000000000 0000 00 00, 00000 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00000 00 00.0000 0000 0000 00 00000 00 0 0000 0
 00.

[000] 0 00000 00 00 00 0 00 00 00

00 000 00000 0000 0000, 00 000 00000 00 00 0 0 0 0000 0000 00000. 0000
 00 000 0000 0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000000 00000 00 0000 0
 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

[2018 00000 0000 00000 00]

- 00 00 : ~ 0 00 00 00 0000 / 0000 00
- 00 00 : 00000000 00000 0000 00(0000▶)
- 0 0 0 : 00
- 0 0 : 00000000 000000 032-760-1097

00	000	00 00	00
0000 0000	[00 00] 00000 00: 00 00 0000 0!	00 000 19 30 8(9. 3 - 10. 29)	0000000 0000
	[00 00] 00 00 0000: 0 00 0000	00 000 19 30 6(9.6 - 10.11)	
	00 0	00 000 11 30 6(10. 5. - 11. 16)	
	0000 0000 00	00 000 14 6(10. 21 - 12. 2)	

<p>□□ □□ □□□□</p>	<p>[□□ □□] □ □□□ □□ □□</p>	<p>□□ □□ 19□ 30□ 4□(8. 29 – 9. 19)</p>	<p>□□□□</p>
	<p>□□ □□□□ □□ □□</p>	<p>□□ □□ 15□ 6□(10. 13 – 11. 17)</p>	<p>□□□□□ □□ □□□</p>
	<p>Book·□□□: □□ □□ □□□ □□□□□.</p>	<p>□□ □□ 19□ 6□(10. 16 – 11. 20.)</p>	<p>□□□□</p>
	<p>□□□ □□□□ □□ □□</p>	<p>□□ □□ 19□ 30□ 6□(11. 2 – 12. 7)</p>	<p>□□□□ ×□□□□</p>
<p>□□□□ □□□□</p>	<p>□□□□ □□: □□ □□□□ □□ □□</p>	<p>□□ □□ 19□ 7□(10. 8 – 11. 19)</p>	<p>□□□□□□□□</p>
	<p>□□□□□□: □□□□ □□□□ □</p>	<p>□□ □□ 19□ 30□ 8□(10. 5 – 11. 23)</p>	<p>□□□□□□□ □□□□</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1,0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 □□□ 2.5%, □□□

17.8%)의 응답. 응답자 중 27.1%(남자 5.0%, 여자 22.1%)의 응답, 남자 48.3%가 '충분하다'라고 응답.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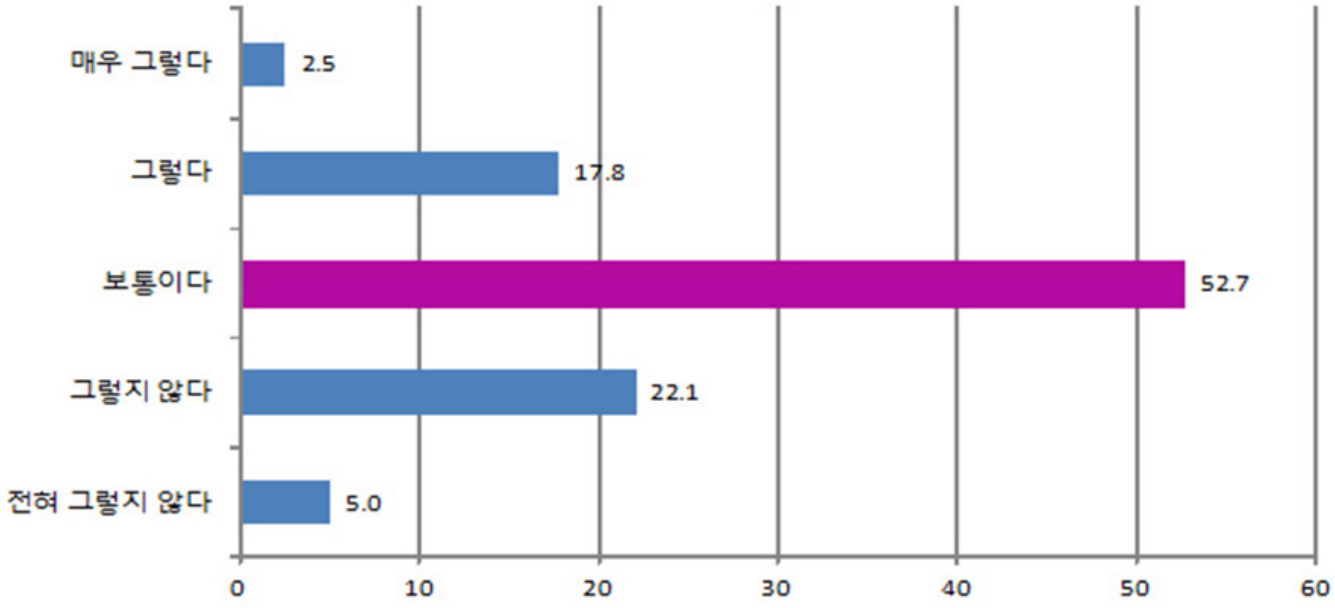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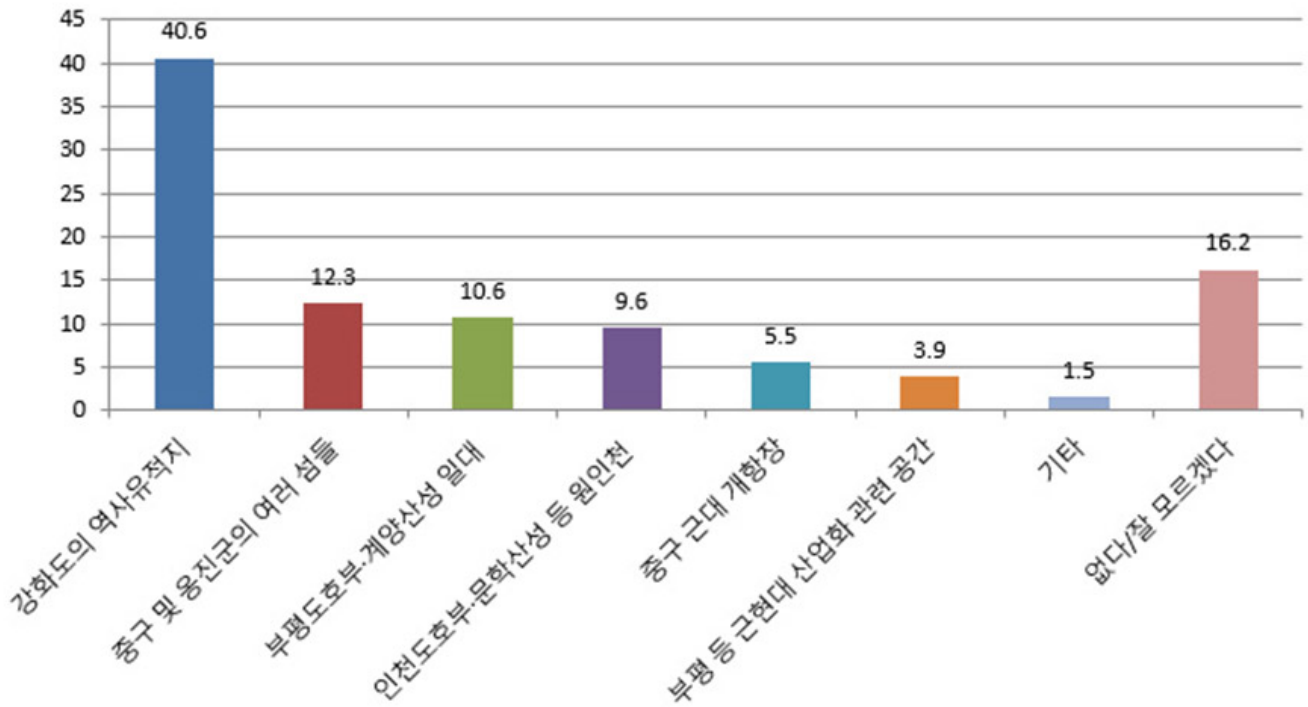


표 1.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부합도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평가한 결과,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2.1%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자는 48.3%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56.1%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연령대에 따라 보면, 20대 이하가 40.6%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30대가 52.7%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직업에 따라 보면, '학생'이 52.7%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주부'가 48.3%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교육 수준에 따라 보면, '고졸 이하'가 40.6%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졸 이상'이 52.7%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면, '100만원 이하'가 40.6%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100만원 이상'이 52.7%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평가한 결과,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2.1%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자는 48.3%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56.1%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연령대에 따라 보면, 20대 이하가 40.6%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30대가 52.7%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직업에 따라 보면, '학생'이 52.7%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주부'가 48.3%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교육 수준에 따라 보면, '고졸 이하'가 40.6%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졸 이상'이 52.7%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면, '100만원 이하'가 40.6%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100만원 이상'이 52.7%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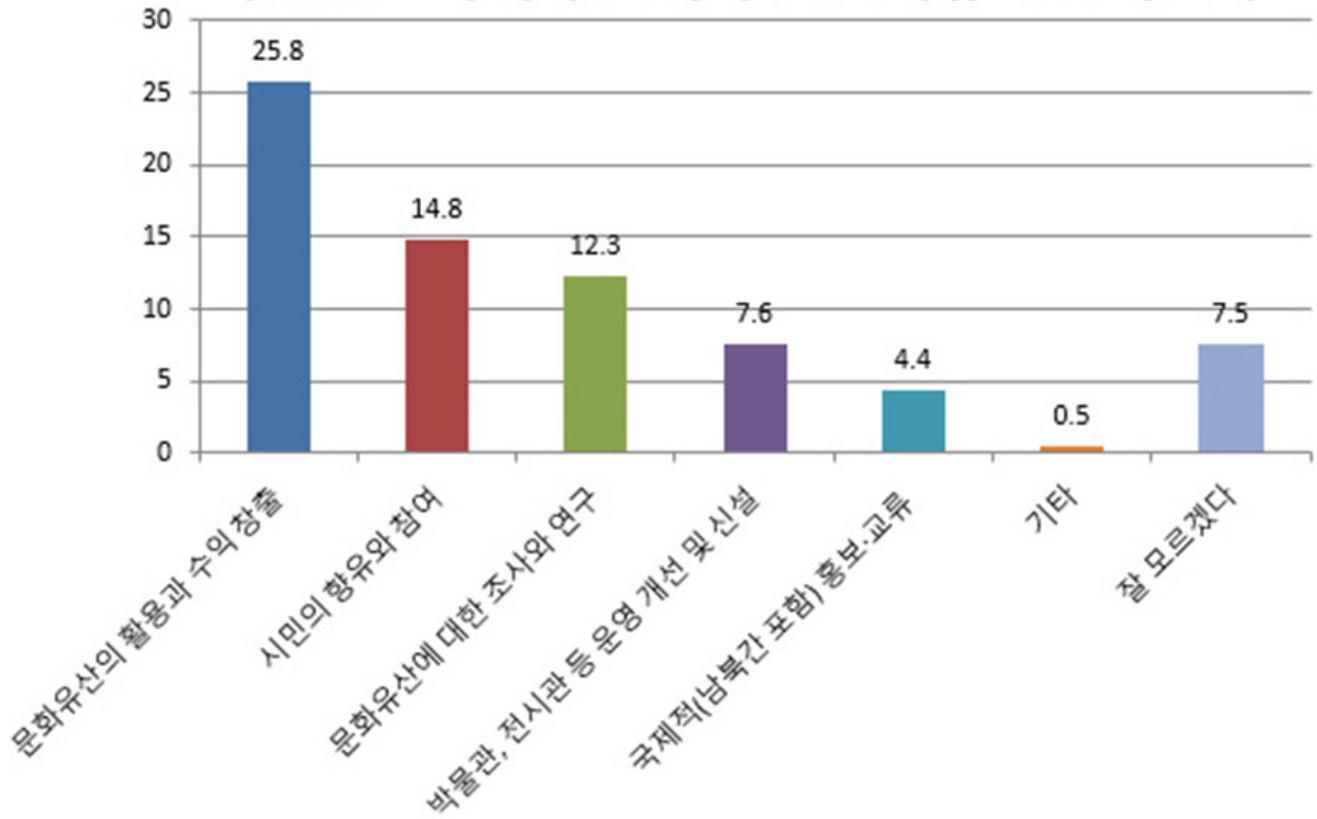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 및 공간



2. 인천의 대표 역사유적 및 공간에 대해

인천의 대표 역사유적 및 공간(표)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공간은 강화도(표)로 27%로, '강화도'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공간(표, 표)이 25.8%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공간이다. '강화도'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공간(표)은 25.8%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공간이다. '강화도'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공간(표)은 25.8%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공간이다.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문화유산 정책분야



□□ 3.00 □□□ □□□□ □□ □□□□ □□ □□

□□□□ □□ □□ □□ □□ □□ □□□□ □□□□ □□□□ 74.3%(□□ □□ □□ 14.3%, □□□ □□ 60.0%) □ □□□ □□ □□ □□ □□□□ □□□□□□ □□ □□ □□ □□ □□□□. □□□ □□ □□□ □□ □□□ □□□ □□□ □□ □□ 50.5% '□□□□□ □□' □□ □□ □□ □□□ □□ □□ □□ □□ □□□□□□ □□□ □□□ □□□ □□□ □□.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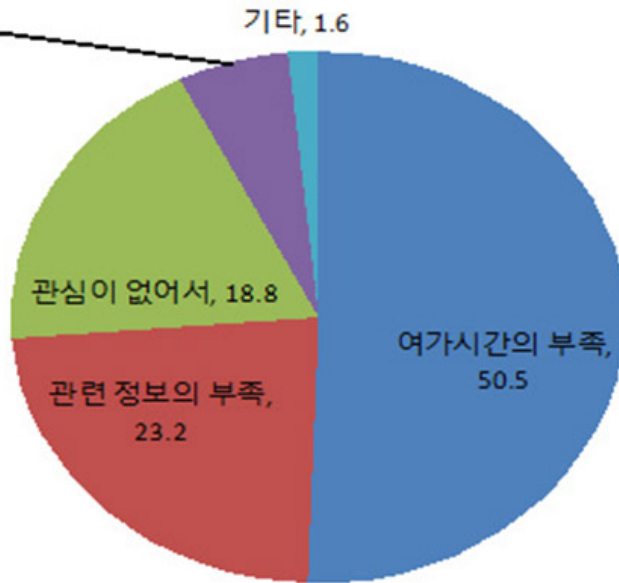


표 4.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07명(남자 503명, 여자 504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응답률은 95%로, 신뢰구간은 ±3.2%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50.5%가 '여가시간의 부족'을, 23.2%가 '관련 정보의 부족'을, 18.8%가 '관심이 없어서'를, 1.6%가 '기타'를, 5.8%가 '역사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표 4.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50.5%가 '여가시간의 부족'을, 23.2%가 '관련 정보의 부족'을, 18.8%가 '관심이 없어서'를, 1.6%가 '기타'를, 5.8%가 '역사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8 PUMP>

8월. 이 달은 우리들이 몸짓명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이달 20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2018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이달 20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2018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2017년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2017년 4-5월 동안에 걸쳐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4-5월 동안에 걸쳐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퍼포먼스 프로그램(PUMP)은**

2017년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2017년 4-5월 동안에 걸쳐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4-5월 동안에 걸쳐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2017년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2017년 4-5월 동안에 걸쳐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4-5월 동안에 걸쳐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2017년 4-5월 동안에 걸쳐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4-5월 동안에 걸쳐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프로그램의 목적

<퍼포먼스> 프로그램의 목적은 "퍼포먼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 ‘...’ ... PD() ... “

... 3-4 ... 4-5 ... 2009 ... 9 ... 2014-15 ... 1 ...

..., ... ‘...’ ...

... ..

‘...’,
‘...’

... ? ... ‘...’ ... !

..., ...



〈자옥 페미 안녕?〉 (2017), 디지털프린트

2-1. 00 00

00 000 0000 000 00 000000 00 00000 0000 0000 00 00 0 00000 '00000000 0000'00 00000 00000 00 00000 00 00000. 000000 0000 0000 0000 00 0 00 00, 0000 00 00000 0000000 0000 00 00000 00 0000 00 0000 '00'0 '00', 00 0 '00'0 00000 0000 00000000. 0 00000 0 00000 00 00 000000000 0000 00000 00000 000000 0000 000000 00 0000. 00000 00 0000 00 00 0000 0 0000 0000000, 0000 0 00 0 0000000 00000 00 0000 0 0 0000 0000 000000000 0000. 0000 00 0 00 0000, 00 00 00000 00000 00000 0 0000 0000000 00 0000 0 00 0000 0000000 0 00000000 0000 0000. 0 00000 0000 00 0000 00, 0000 00000 0000 00 00, 00 00 00000 0000 0000 0000. 0 00000 00 0000 0 0000000 0000 00 0000 0 0 00000. 0000 0000 0000 00 000000 0000, 00 0000 00 00 0000 0000 0000000 0000 00000 0 0 00000 00000 0000 00 0 0000. 00 0000 0000 00000 0000 0 0000 00 <0000000> 0 0000 000000.



<지옥에서 올라온 중북페미마녀 송아영씨의 씬나는 파티> 무대 세팅



0000같은 남근다발

<0000> 000 000 00 000 000000 00000. '0000000 0000'0000 00 000000 00000 00 00000. 0000000 00000 00000 0000

이 공연은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DJ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공연은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DJ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열린 공연”의 모습
[Youtube 링크 ▶](#)

3. 공연

이 공연은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DJ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공연은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DJ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

인천합창은 2017년 5월 <인천합창 100> 전시를 통해 100주년 기념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으며,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으며,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습니다.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으며,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습니다.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으며,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습니다.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

이 전시를 통해 '인천합창'의 100주년 기념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으며,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습니다.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으며,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습니다.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으며,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습니다.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으며, 500여 점의 전시물을 선보였습니다.



김영의, 엡윗 청년회.

1908년 '엡윗 청년회'를 창립한 김영의는 1908년 미국 시카고에서 창립된 감리교회 청년회이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유훈지명이 엡윗이었다. 1906년에 창립된 독립협회 해산 후 기존 내선교회 청년회로 승격되어, 엡윗청년회 활동이 확장된다. 엡윗청년회는 애국가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음악 활동을 전개했다. 엡윗청년회 음악부 주최 공연회 중 '아시안 피티널 음악부'도 두어 차례 공연, 방송된, 오프간 등을 가졌다.

1963년 12월 15일, 김영의는 서울에서 사망했다.



최영섭 작곡가겸 지휘가

최영섭 작곡가 겸 지휘자.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동한 그는 1958년 인천예초가협회교향악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YWCA, YMCA 등 다양한 단체에서 지휘 활동을 펼쳤다. 특히 1968년 인천국제학생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1970~1980년대까지 인천국제학생합창단, 인천정문관합창단, 인천예초가협회교향악단 등의 지휘자로 활동했다.



윤학원 예술감독

그는 ‘교향곡 10번’을 비롯하여 100여편의 작곡작품을 남겼으며, 1968년부터 1983년까지 신성음악사(현 신성음악)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대구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으며,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레디스싱어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교향악단(현 교향)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시합창단의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동양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새마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인천'을 주제로 작곡된 합창곡

인천시립합창합동제 (1983) | 인천시립합창대 축제
관찰역사 (1986) | 인천시립합창대 축제
인천시립합창대축제 (2014) | 인천시립합창대 축제
우여동래 합창축제 (2015) | 인천시립합창대 축제
합창제 (1985 & 2015) | 인천시립합창대 축제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 전경

□/ □□□

□□□□□□ □□□□ □□, □□□□ □□□□ □□
 □□ □□□□□□ □□□□ □□□ □□ (D.M.A.)

YTN “□□□□ □□□□” □□

□□□□, □□□□. □□□ □□

(□)□□□ □□□□□ □□

[□□□□ □□□□ ▶](#)

[□□□□ □□□□ ▶](#)

□□

□□□

□□□□□□ □□□□ **Rock(□) Cam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락캠프’ 입구

2000년대 3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이후 2010년대, 이 40년 동안 ‘락캠프’는 서울의 대표적인
 클럽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수많은 음악인들이 이곳에서 데뷔하거나 활동했다. 락캠프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특히 락, 펌프, 힙합 등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락캠프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해왔다. 이
 외에도, 락캠프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해왔다. 이
 외에도, 락캠프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해왔다. 이
 외에도, 락캠프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해왔다. 이
 외에도, 락캠프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해왔다. 이
 외에도, 락캠프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해왔다. 이



‘락캠프’ 내부 전면



‘락캠프’ 내부 뒤쪽 이미지

1997년 설립된 락캠프는 2006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락캠프는 70여 명의 직원과
 2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락캠프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해왔다. 이



'락캠프' 공연 무대

2015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5층 '락캠프' 공연 무대. 공연 시간은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공연료는 350만원이며, 공연 수익금의 1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공연 수익금의 9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공연 수익금의 1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공연 수익금의 9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되는 수익금의 1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공연 수익금의 9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공연 수익금의 1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공연 수익금의 9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되는 수익금의 1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공연 수익금의 90%는 '락캠프' 공연 무대 운영에 사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제는 100년 전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문화의 전통을 이어
가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등 '우리 문화 전통'의
정신을 이어. 우리 등 '우리 문화 전통'의 정수를 이어. 우리, 91~92년
전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문화의 전통을 이어.



이것은 벽에 걸린 시계입니다. 시계의 바늘은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계에는 'KBS'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시계의 배경은 벽이며, 오른쪽에는 어두운 사각형 물체가 일부 보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제공

이 글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인천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오직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글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인천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오직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김영남(Kim Young Nam), 인천문화재단
연구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문화재단

Archiv Project

“...?”

“... 10... ‘...’...”

60... 10... ”

“...?”

... ‘...’...”

... 1... ‘...’, ... ‘...’...”



인천항 갑문소리 녹음 ©안병진



십정동 재개발 현장의 소리 ©안병진

이 사진은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MBC 방송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사진은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에는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 그리고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 그리고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은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에는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 그리고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은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에는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 그리고 'MBC 방송사' 신축 공사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백령도 두문진 소리 ©안병진

이 글은 백령도 두문진 소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두문진은 백령도에서 가장 큰 바닷굴로, 길이 약 200미터에 달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마치 두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이는 백령도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입니다. 이 소리는 매년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백령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문진은 백령도의 자연 경관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마치 두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이는 백령도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입니다. 이 소리는 매년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백령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문진은 백령도의 자연 경관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마치 두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이는 백령도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입니다. 이 소리는 매년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백령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00만 구독자를 돌파한 채널들에서 두드러진다. 구독자 수가 100만 이상인 채널들은 <채널 이름>을 채널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채널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50 30) 채널은 구독자 '수'를 강조하는 전략을 보인다. 채널 이름 '수'가 구독자 수를 6개월 만에 3배 늘린 채널이 있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UHD, 4K 등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들이 '수'를 강조한다. 30분 이하 <채널 이름 이름> 채널은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40분 이상인 채널은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40분 이상인 채널은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수'를 강조한다. 특히 AI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수'를 강조한다. 특히 <채널 이름>(tvN), <채널 이름>(tvA) 등 TV 채널은 ASMR 채널을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자율 감각 경계 반응)은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수'를 강조한다. 특히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내리교회 종소리 녹음 ©안병진

이 프로젝트는 종소리 녹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질감과 울림을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Dolby Atmos DTX Headphone X와 Sonicteer의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공간감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소리 녹음>은 종소리 녹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질감과 울림을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Dolby Atmos DTX Headphone X와 Sonicteer의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공간감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종소리 녹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질감과 울림을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Dolby Atmos DTX Headphone X와 Sonicteer의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공간감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종소리'의 울림을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병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자연의 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강화 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안병진

이 프로젝트는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입니다.

안병진 (Ahn Byung Jin)

1976년 11월 11일
서울 PD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

-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2013),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2013)
-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2014),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2017),
-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2017),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2018) 등 다수.
- [Sound of Incheon] (2017), [강화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2012) 등 다수.